

01

인도네시아

새로운 삶을 위한 'Old tech'

- › 활동기관 : 인도네시아 무역부
수출교육훈련센터(IETC)
- › 자문분야 : 중소기업 진흥
- › 자문내용 :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수출 중소기업
해외 진출 지원
- › 성 명 : 고 상 한



그들에 대한 믿음이 쌓이는 시간

어느새 아침. 눈을 뜨자마자 언제나처럼 오늘 해야 할 일들부터 계획해 본다. 아울러 긍정적인 자기 암시로 스스로에게 용기를 북돋는다. 더욱이 오늘은 벌써 한참 전부터 고대하던 날이 아니던가. 지난 3년 동안 내가 활동해 온 인도네시아수출교육훈련센터 (Indonesia Export Training Center, 이하 IETC)의 무역 교육을 받고 현업으로 돌아간 수출 중소기업 대표(졸업생)들에 대한 보충 교육이 예정된 날이었다. 그동안 많은 도움과 조언을 나누며 희망을 키워 온 정 많고 웃음기 가득한 반가운 얼굴들을 볼 수 있다는 생각에 벌써부터 가슴이 설렸다.

사실 요 며칠간 그들에게 꼭 필요한, 그리고 실질적 도움이 될 만한 주제를 찾고 발표 자료까지 밤잠을 설치며 준비하느라 힘들기는 했다. 피곤함이 무겁게 내려앉은 출근길. 하지만 정문에 가까워지면서 나를 알아보고 거수경례를 하는 경비원의 모습이 발걸음의 무게를 덜어 준다. 매일 아침 사무실 입구에서 만나는 늙고 뚱뚱한 경비 대장 역시 듬성 듬성 빠진 치아를 드러내며 “굿모닝”이라고 인사를 건넨다. 어찌 보면 “슬라맛 빠기” 혹은 “앗살람무 알라이 콤”이라는 이슬람식 인사가 더 자연스러울 테지만, 외국인인 나에 대한 배려이리라. 어느새 내 입가에는 열은 미소가 번진다.

세미나실에 들어서자 낯익은 얼굴들이 나를 반긴다. 오랜 친구처럼 푸근하게 다가오는 사람들. “서낭 씨칼리 비사 버러떠무 안다 라기(다시 만나게 되어 기뻐요)”라며 내 주위에 서더니 막무가내로 사진부터 찍기 시작한다.



짧은 인사를 나누고 이내 발표를 시작했다. 조금 전까지 실없는 농담에 높았던 웃음소리는 간데없고, 이내 진지한 표정들로 바뀌어 있었다. “Social Media Marketing using SNS”에 대한 발표 내용에 큰 관심을 보이며 한마디라도 놓칠까 진지하게 경청했다. 심지어는 발표가 마무리되고 헤어져야 할 시간이 되었는데도 “자문과 도움이 필요하다”, “좀 더 효과적인 바이어 발굴 방법을 가르쳐 달라”, “어떻게 한국 시장에 쉽게 진출할 수 있을

까?” 등 계속되는 질문이 이어졌고, 결국 갑작스런 컨설팅까지 이어졌다. 자사 제품을 수출하고자 하는 인도네시아 중소기업인들의 열정은 놀라울 정도였다. 그런 모습을 보며 우리나라가 그랬던 것처럼 인도네시아 역시 머지않아 무역 대국으로 성장하리라는 확신이 들었고, 충분한 잠재력을 가진 나라가 인도네시아라는 생각이 들었다.

꿈을 위해 사는 삶

IETC에서 자문 활동을 하면서 내가 이렇게 누군가에게 도움과 힘이 될 수 있다는 사실에 자부심을 느꼈다. 한편으로는 이렇게 다시 보람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준 NIPA에게 고마웠다.

30여 년간 천직으로 알았던 국책 은행에서의 시간을 마무리하고 직장 바깥에서 맞닥뜨

린 현실은 놀라움의 연속이었다. 그동안 온실 속에서 큰 착각을 하며 살았구나 싶어 부끄럽기도 했고 의욕만으로 인생의 나머지를 채우는 데 한계가 있음을 절감하게 되었다. “젊은이들도 일이 없다고 아우성인데 나는 도대체 무슨 일을 해야 하나?” 내게 주어진 인생의 후반기를 변함없는 가장으로, 자랑스러운 아빠·할아버지로 살아가기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은 점점 커져 갔다.

하지만 그런 혼란 속에서도 ‘몰입하는 삶을 살겠다’는 굳건한 원칙은 변함이 없었다. 열정이 있다면 마음이 늙지 않고, 마음이 늙지 않으면 육체 또한 건강해지지 않겠는가. 100세 시대라고들 하는데, 그렇다면 벌써 은퇴하기에는 너무 젊지 않은가. 분명한 것은 새로운 삶을 위를 위한 ‘財tech’가 아닌 ‘Old tech’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것이었다.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할 용기 있는 모습은 자신의 아픔과 힘든 과거를 뒤로하고, 이를 빠져나와 우리의 꿈을 위해 사는 것이다”라는 오프라 윈프리의 말처럼 용기를 갖고 젊었을 때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일을 찾아 다시 도전하리라. 그리고 ‘준비하는 사람에게 기회는 반드시 온다’는 신념으로 누구보다 열심히 집중하면 나이 때문에 못하는 일은 없을 거라 생각했다.

'월드프렌즈 NIPA 자문단'을 만나다

생각은 그러했지만 딱히 무엇을 하겠다는 목표는 아직이었다. 더욱이 봉사, 그것도 다른 나라에서 누군가를 돕는 일은 생각하지도 못했다. 돌이켜 보면 아마도 봉사에 대한 관심이 싹트기 시작한 것은 예쁜이와의 산책 때문이 아니었을까 싶다.

예쁜이는 우리 부부와 15년을 함께 지낸 말티즈였다. 젊어서부터 산행을 즐겨 온 나와 집사람은 웬만해서는 주말 산행을 거르는 법이 없었고, 그 길에는 늘 예쁜이도 함께였다. 주말이면 아침 일찍부터 현관을 지키고 앉아 어서 산에 가자며 보채곤 했다. 나이를 먹어

척추가 약해지고 백내장으로 시력이 떨어진 후에도 여전히 산행을 즐기는 활달한 녀석이였다. 오히려 녀석 성화에 매일 저녁 양재천으로 산책을 나설 정도였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정말 예쁜이를 위한 것이었을까? 건강해 보인다고, 부쩍 건강해졌다는 주변의 이야기를 듣게 되니 오히려 예쁜이가 내 건강을 챙겨 준 것이 아닌가 생각되었다. 이처럼 우리 가족에게 남달랐던 녀석이었기에 먼저 떠나보낸 빈자리는 무엇보다 크게 느껴졌다. 어느 정도 마음의 준비는 하고 있었지만 정작 곁에 예쁜이가 없으니 마치 팔다리가 떨어져 나간 듯했다. 그런 상실감이 있었기에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졌던 것일까? 다른 누군가와 시간을 나누며 서로에게 힘이 되어 주고 싶다는 생각이 든 것은 아마도 예쁜이가 남긴 선물이 아니었나 싶다.

하지만 이전과 다른 것을 얻는다는 게 쉽지는 않았다. 무엇부터 시작해야 하는지도 몰랐다. 다만 무엇이든 배워야겠다는 생각뿐. 우선 외국어 공부를 시작했으나 그마저도 녹록한 일은 아니었다. 예전에 중단했던 일본어와 중국어를 다시 시작했지만 진도는 언제나 제자리였다. 그러나 조금증을 낼 필요는 없었다. 난 아직 젊지 않은가. 느긋한 마음을 가지니 새로운 지식을 충전하는 일도, 그리고 그것을 유용하게 쓰는 일도 길이 보이기 시작했다.

L산업의 상무 이사로 재직하던 어느 날 뜻밖의 소식이 전해졌다. 법정 관리 기업의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는 것이었다. 종업원 1,500여 명, 수출 실적 4천만 불, 수직 계열사 및 H상호저축은행 등 투자회사 2개, 국내 공장을 비롯해 칭다오 및 탕시아 중국 생산 공장, 말레이시아 페낭 생산 공장, 브라질 마나우스 생산 공장, 홍콩 현지 법인, 동경사무소, 코스닥 상장 등 어마어마한 스펙을 가진 기업의 CEO가 되어 회생을 주도해야 하는 막중한 임무가 부여받게 된 것이다.

취임과 동시에 정신없는 시간을 보냈다. 시련과 도전이 교차되는 절체절명의 순간이 이어졌지만 ‘열정을 다해 노력하면 안 되는 게 없다’는 좌우명으로 오직 앞만 보고 달렸다. 일본에서 중국과 말레이시아로, 그리고 머나먼 브라질로 숨 가쁘게 왕래하였던 기억들이

아찔하다. 그러나 지성이면 감천이라 하지 않던가. 나를 비롯한 모든 구성원의 뜨거운 열정에 힘입어 회사는 빠르게 정상화되었고, 가시적인 영업 이익까지 기록하며 M&A 시장의 스타 기업이 될 수 있었다. 그리고 끝내 법정 관리 졸업! 바람 앞에 촛불 신세였던 기업이 새로운 옷을 갈아입고 재탄생하는 순간 나는 이제껏 느끼지 못했던 행복을 만끽할 수 있었다.

오래전 영국의 <런던 타임즈>가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조사·발표한 내용이 있었는데 그중 1위는 바닷가에서 멋진 성을 완성한 아이였다. 뒤를 이어 멋진 공예품을 완성시키고 손을 터는 예술가, 죽어 가는 생명을 수술로 살려낸 의사가 2위와 3위였다. 법정 관리 딱지를 내 손으로 걷어 내는 날, 나는 아이가 되었고 예술가가 되었고 의사가 되었다. 나중에 들으니 내가 법정 관리인으로 있었던 기업의 정상화 사례는 단기간 내에 고속 성장을 이끌어 냈으므로 한국 기업 구조 조정사에 큰 획이 된 업적으로 평가받고 있다고….

다행히 지금은 회사는 안정화되어 코스닥 상장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 기존 거래선과의 관계도 꾸준히 유지하며 수출을 계속하고 있다. 특히 수많은 종업원은 물론 협력 회사 직원들까지 걱정 없이 생업을 이어가고 있다는 사실이 무척이나 고맙고 뿌듯하다. 개인적으로도 기업이 국가 경제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지 절감하는 계기가 되었다.

예쁜이를 먼저 보낸 슬픔과 정리 기업의 경영 정상화로 느낀 희열이 나로 하여금 봉사 에 눈을 뜨게 해주었다. 법정 관리인의 역할을 마친 이후 나는 대·중소기업협력재단, 경영자문단 경영 자문 위원 등으로 활동하며 우리나라 중소기업 발전에 조금이나마 힘을 보태려 노력했다. 그러던 중 또 다른 도전의 기회가 찾아 왔다. NIPA에서 주관하는 퇴직 전문가 해외 파견 사업에 관한 정보를 접하게 된 것이다. 다른 나라를 위해 일할 수 있는 기회! 한 치의 망설임도 없이 지원서를 작성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인도네시아행 비행기를 탑승하게 되었다.

잠재력의 나라, 인도네시아

우리나라는 1960년대 이후 ‘한강의 기적’이라는 놀라운 경제 발전을 이루며, 반세기라는 짧은 시간에 근대화와 산업화를 동시에 이룩한 유일무이한 사례가 되었다. 더욱이 1980년대 후반의 극심한 노동 자유화 운동과 1998년의 외환위기를 겪으면서도 그마저도 산업 구조 재편을 통해 단기간 내 극복함으로써 한국 경제의 잠재력과 가능성을 전 세계에 보여 주었다. 이처럼 우리와 우리 선배들이 이뤄 온 경제 발전은 개발 도상국이나 후진국에게 충분한 역할 모델이 될 수 있으리라. 낯선 적도의 나라 인도네시아로 떠나면서도 두려움보다 설렘이 컸던 것은 할 수 있다는 자신감 때문이었다.

우리나라는 이미 2010년에 수출 세계 7위, 무역 규모 세계 9위를 기록하였고, 2011년에는 무역 1조 달러 시대에 진입함으로써 명실상부 무역 강국으로 우뚝 서게 되었다. 이는 국민·기업·정부의 노력과 더불어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는 무역 인력을 육성하는 한편 적시에 공급했기 때문이었다.

인도네시아 역시 우리나라처럼 무역을 통한 경제 발전을 목표로 삼고 있는 나라이다. 하지만 2011년 이후 무역 수지는 3년 연속 적자를 보이고 있고, 세계 경기 회복 지연과 원자재 가격 하락 등의 이유로 2014년 수출은 정부 목표치인 1,844억 달러에 못 미치는 1,763억 달러를 기록하고 말았다. 한편 인도네시아의 인구는 2014년 기준 2억 5,000만 명으로, 2035년이 되면 3억 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처럼 풍부한 노동력은 분명 국가 경제 발전을 위한 중요한 요소임에는 분명하다. 그러나 반대로 안정적인 일자리 공급, 소득 증대, 노동 인구 경쟁력 강화 등의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숙제로 남아 있다. 또한 5,600만 개에 달하는 중소기업을 보유하고도 수출 기반이 미비하여 중소기업의 수출 총액이 인도네시아 전체 수출의 14% 수준에 그치는 상황 역시 보완이 시급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런 인도네시아 경제 환경을 감안할 때 우선 우리나라의 경제, 무역 발전과 관련한 전

문 지식 및 노하우를 전수하는 게 급선무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인도네시아 중소기업의 수출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한편, 무역 역량 강화를 통한 소득 창출을 통하여 현지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겠다는 목표를 실천해 왔다.

돌이켜 보면 자카르타에 첫발을 내딛을 당시의 목표와 다짐을 얼마나 충실히 실천했는지 모르겠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현지 기업인들의 생각과 태도에 작으나마 변화가 시작되었고, 이런 성과들이 훗날 인도네시아를 지탱하고 성장시키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리라 굳게 믿고 있다.



인도네시아에서의 시간과 보람

인도네시아의 무역교육 수준은 20여 년 전 우리나라처럼 집합 연수 위주 교육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고 1만 7,000여 개에 달하는 섬에 흩어져 살고 있는 수억 명에게 공평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온라인 교육 시스템을 도입하고자 한국 정부의 유관 기관과 긴밀한 접촉을 계속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인도네시아 무역부 및 국가개발계획청에서도 우리나라 정부 기관에 해당 시스템 설치를 요청한 상태이다.

인도네시아 무역 공무원들의 능력 배양을 위한 지식 공유에도 각별한 공을 들였다. 가급적 다양한 자료를 수집하려 노력했고, 적극적인 프레젠테이션 및 회의를 통해 효율적인 정보 전달을 시도했다. 현지인들 역시 하나라도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 매순간 진지한 자세를 보여 주었고, 그러한 열정에서 인도네시아 무역의 무한한 가능성을 엿볼 수 있었다.

무역 전문 인력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자카르타 수출훈련센터를 비롯한 각 지방의 무역 교육 기관을 돌며 중소기업인들을 대상으로 한 무역인 양성 교육 및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수마트라 잠비 주정부 통상산업청이 주최한 수출 중소기업 코칭 프로그램 참석 (Director M. Yamin 및 관계 공무원)



수마트라 잠비 주정부 통상산업청이 주최한 MEA(아세안 경제공동체) 대응 수출 중소기업 전략 세미나 참석

지방 정부의 중소기업 진흥 및 수출 증대 정책 수립에 참여하여 힘을 보태는 것이 자문관으로서의 주요 목표 중의 하나였다.

소기업에서의 현장 컨설팅. 나의 도움이 필요한 곳이라면 기업 규모는 상관이 없다. 내가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소기업의 광고 모델도 마다하지 않았다.

인도네시아 무역부의 연간 최대 행사인 ‘Trade Expo Indonesia’의 포럼 참석 및 한국 바이어 상담, 그리고 Inter Active Dialogue에서 ANZ(Asia and New Zealand) 지역 담당 컨설턴트로서 수출 마케팅 전략 관련 프레젠테이션 진행.



육아카르타 특별주 STIM대학 Retno Hartati 학장 및 특별주 무역 담당 공무원



1. 잠비 소재 식품 수출업체 및 육아카르타 소재 우수 수출 기업주에 대한 시상
2. Surabaya소재 바틱제품 수출업체



1. Trade Expo, Indonesia, InterActive Dialogue 에서 ANZ(Asia and New Zealand) 지역 담당 컨설턴트로서 수출 마케팅 전략 프레젠테이션 진행
2. 'Trade Expo Indonesia'의 포럼 참석
3. 대사관, KOICA 주체 세미나
4. 싱가포르 포럼
5. 대사관 주최 간담회



파견 활동 중 KOICA 워크숍과 NIPA 포럼에 참석하여 자문 활동 경험 및 정보를 공유하고 지식을 재충전한다. 훌륭한 인격과 경륜을 지니신 동료 자문관들과 함께할 수 있어 고맙고 자랑스럽다.

현지 공무원 및 무역 역군 등과 함께 땀 흘려 일하고 진심을 나누려는 노력이 있을 때 결국 서로의 마음을 하나로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나아가 우리나라에 대해 높은 이해와 우호적 감정을 지닌 친한국 인사들도 더 많이 생겨나게 될 것이다. 이들에게 든든한 친구가 되어 더불어 사는 세상의 주인공이 되는 것이야말로 나를 비롯한 자문관들의 공통된 바람일 것이다.

현지 공무원 및 무역 역군 등과 함께 땀 흘려 일하고 진심을 나누려는 노력이 있을 때 결국 서로의 마음을 하나로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나아가 우리나라에 대해 높은 이해와 우호적 감정을 지닌 친한국 인사들도 더 많이 생겨나게 될 것이다. 이들에게 든든한 친구가 되어 더불어 사는 세상의 주인공이 되는 것이야말로 나를 비롯한 자문관들의 공통된 바람일 것이다.

Young Old(65~75세)들의 새로운 도전

나이를 기준으로 노인을 재단하고 이를 기준으로 능력이나 열정을 평가하는 일은 이미 구태가 되었다. 요즘은 50대 못지않게 활력을 발휘하며 제몫을 다하고, 스스로 책임을 지는 70대도 많다. 가까이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자문관님의 연세도 70대 중반이고 보면 나이는 결국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같은 노인이라도 육체와 정신을 어떻게 단련하느냐에 따라 정신적·육체적 건강 연령은 사람마다 달라지는 법이다.

나이는 먹는 것이 아니라 거둬 더하는 것이며, 나이는 칠을 더할 때마다 빛을 더해 가는 옷과 같은 것이다. 나이를 먹는다고 해서 결코 기회가 적어지는 게 아니다. '꿈꾸는 노인은 행복하다'는 말처럼 꿈을 버리지 않으면 언젠가는 행복한 현실이 될 수 있고, 준비만

믿음이 있으면 젊은 것이고, 의혹이 있으면 늙은 것이다.
자신감이 있으면 젊은 것이고, 두려워하면 늙은 것이다.
희망이 있다면 젊은 것이고, 절망한다면 늙은 것이다.
세월은 피부에 주름을 만들지만,
사라진 열정은 영혼에 주름을 만든다.

- 가오위엔, '승풍파랑'에서

한다면 할 일을 얼마든지 발견할 수 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Young Old'들에게 권해 본다.

“열정과 용기로 새로운 일에 도전해 보시지 않으시렵니까?”



인도네시아
고 상 한

- 연세대학교 대학원/ 경영학/ 석사 재학
- 前 한국외환은행 근무
- 前 서울전자통신주식회사 법정관리인
- 前 대, 중소기업협력재단 경영자문위원
- WFK NIPA Advisors - 인도네시아 무역훈련센터 파견

